



재난보도와 트라우마: 언론의 역할과 책임

심민영 국립정신건강센터 국가트라우마센터장

1. 들어가며

제주항공 참사는 부상자와 유가족, 지역 사회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에 깊은 트라우마를 남겼다. 재난 현장은 구조를 요하는 피해자와 가족, 소방대원, 의료진, 행정인력, 취재진 등이 뒤섞이며 극도의 혼란이 발생하는 공간이다. 동시에, 미디어와 SNS를 통해 재난의 참혹한 현상이 실시간으로 전파되면서 사회 전체가 집단적 충격을 경험하게 된다. 이는 재난 트라우마가 단순히 물리적 거리에 의해 제한되지 않고, 사회적 경험으로 확산되는 현상을 보여준다.

재난보도는 단순히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넘어 피해자 보호와 사회적 회복에 기여해야 한다.

그러나 과거 세월호 참사, 이태원 참사 등을 보면 선정적이고 자극적인 보도가 2차 피해를 유발한 사례가 많았다. 국가트라우마센터와 한국언론진흥재단이 제작한 「트라우마 예방을 위한 재난보도가이드라인」(이하 트라우마 가이드라인)에서는 트라우마를 예방하고 회복을 돕는 재난보도 방식을 제시하고 있다. 본 글에서는 제주항공 참사를 중심으로 재난보도를 트라우마 관점에서 분석하고, 생존자와 유가족, 언론, 사회가 고려해야 할 사항을 제언하고자 한다.

2. 재난 현장 취재와 보도의 문제점 및 개선 방향

(1) 선정적 보도와 자극적 영상

과거 세월호 참사와 이태원 참사 보도에서도 나타났듯이, 재난보도에서 감정적인 장면을 강조하거나 피해자의 고통을 극대화하는 방식은 2차 피해를 유발할 수 있다. 방송 뉴스에서 사고 장면을 반복적으로 재생하거나 현장음을 과도하게 활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화성 아리셀 공장 화재의 경우 처음 불이 시작되어 공장 내부가 연기로 가득 차는 CCTV 영상이 공개되었고 반복적으로 사용되었다. 희생자들이 소화기를 들고 달려들었다가 불길과 폭음에 놀라며 뒷걸음질 치는 사망 직전 모습이 보여지기도 하였다. 제주항공 참사 역시 여객기가 충돌하여 폭발하는 장면이 편집없이 송출되어 유가족과 뉴스 이용자들에게 충격을 주었다. 2차 트라우마를 유발할 수 있다는 지적하에 방송사에서는 충돌 장면을 멈춤 처리하고 불에 탄 비행기 장면으로 전환해 보도하였다. 그러나 해당 영상이 유튜브나 SNS로 확산되는 것까지 막지는 못하였다.

(2) 과도한 인터뷰와 사생활 침해

최근 고려대 연구진은 “트라우마 예방관점 재난보도 현황조사”를 통해 이태원 압사사고, 오송 지하차도 침수, 화성 공장 화재에 대한 주요 미디어의 보도를 분석했다. 피해자의 재난 당시 경험이나 목격자의 사고 현장에 대한 진술을 지나치게 상세하게 담거나, 목숨을 잃은 피해자를 구조하지 못하고 지켜볼 수밖에 없었던 상황을 힘들게 회상하는 등 트라우마 반응을 유발하는 인터뷰가 포함된 기사가 19%였다. 재난 당사자의 개인정보와 사생활이 노출된 기사(14%), 재난 당사자나 가족의 극도의 오열이나 흥분상태를 여과없이 보도한 경우(13%)도 적지 않았다.

그러나 트라우마 예방 관점에서 국내 언론들이 선정적이고 자극적인 보도를 줄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은 분명해 보인다. 2022년 한국언론진흥재단에서 실시한 이태원 참사 보도에 대한 조사 결과를 보면 많은 사람들이 ‘유족에 대한 조심스러운 접근’(72.8%), ‘희생된 개인에 대한 지나친 사생활 보도 자제’(71.4%), ‘참사 영상 활용 자제’(68.5%)에 동의하였다. 재난 당사자들도 적극적으로 재난보도 준칙을 준수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무안국제공항 곳곳에는 초상권과 사생활 침해를 금지하고 인터뷰 강요를 금지하는 안내문이 게시되었다. 언제든 속보 경쟁 앞에서 자체적인 윤리 강령이나 재난보도 준칙, 트라우마 가이드라인이 무력화될 수 있는 만큼 국가트라우마센터에서는 재난과 위기사건에 대한 보도를 계속 모니터링하고 피드백을 제공하며 언론인은 이를 취재와 보도에 반영하고 자정적인 노력을 지속해야 한다.

(3) 악성 댓글과 루머의 확산

이태원 참사 이후 온라인상에서 악성 댓글과 루머가 만연했는데 관련 기사에 달린 약 230만 건의 댓글 중 약 30%가 악의적 평가나 혐오표현에 해당하였다. 일부 정치인이나 유튜버, 인플루언서들은 지지층을 결집하기 위해 혐오표현을 의도적으로 사용하였다. 이에 동조하는 쪽과 비난하는 쪽으로 양분되면서 논쟁이 격화되고 특정한 입장을 가진 사람들은 자신이 믿고 싶은 정보만 받아들이면서 혐오표현을 강화한다. 제주항공 참사에서도 사고가 발생한 지역에 대한 혐오표현이나 확인되지 않은 음모론이 퍼져 유가족협의회에서는 시민단체에 여객기 참사 관련 보도의 댓글창을 닫을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를 내달라고 요청하기도 하였다. 2차 가해는 재난 당사자들의 트라우마를 악화시키고 사회적 신뢰와 연결감을 회복하는 데 치명적인 악영향을 끼친다. 언론에서는 혐오표현을 확대 재생산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혐오표현이 재난 당사자와 사회 전체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지적해야 한다. 온라인 명예훼손 및 허위정보 유포에 대한 강력한 법적 대응이 필요하며, SNS 및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서도 적극적인 모니터링이 이루어져야 한다.

(4) 재난 초기 책임소재 집중 보도

재난 초기, 언론 보도의 50% 이상은 책임소재 규명과 대응 비판에 집중된다. 재난은 개인의 실수나 단일한 원인으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구조적, 정책적 문제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인 경우가 많다. 그러나 사건 발생 직후 책임을 빠르게 규명하려는 압박 속에서 언론 보도가 성급한 비난과 단정적인 논조를 보일 때가 많으며, 이 과정에서 사건의 근본 원인보다는 관리자나 특정 기관에 책임을 전가하며 ‘희생양’을 찾는 방식으로 보도가 이루어지는 경향이 있다. 이는 문제의 본질을 흐리고 객관적인 진상 규명을 어렵게 할 뿐 아니라 특정 기관이나 기업의 책임자로 지목된 이들이 언론과 대중의 과도한 비난을 견디지 못하고 자살과 같은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재난의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서는 전문가들의 분석과 종합적인 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언론과 대중의 관심이 급속도로 줄어들면서 충분한 조사가 이루어지기 전에 이슈가 사라지고, 결국 원인은 명확히 밝혀지지 못한 채 흐지부지되는 경우가 많다. 책임을 묻는 보도가 필요하긴 하지만, 재난보도의 초점이 단기적인 비난에만 머물러서는 안 된다. 보다 체계적이고 심층적인 접근을 통해 근본적인 원인 규명과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며, 언론도 이에 대한 관심을 지속적으로 유지해야 한다.



(5) 현장 취재진의 트라우마

재난 당사자와 뉴스 이용자뿐 아니라 재난 현장을 취재하는 언론인의 트라우마 예방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기자들은 유족 취재를 가장 힘든 경험으로 손꼽았다. 충격과 비탄에 빠진 유가족들에게 현재의 심정을 물을 때 직업에 대한 회의를 느꼈다고 말한다. 이것은 도덕적 손상(moral injury)으로 업무와 자신의 가치관이 충돌할 때 발생한다. 언론인으로서의 사명감과 긍지만으로 버티기에는 재난 현장은 너무나 가혹하다. 더구나 언론인들은 재난 업무 종사자로서 반복적으로 트라우마 현장에 노출될 수밖에 없다. 반복적인 노출은 언제고 공황장애, PTSD, 우울증 등 다양한 방식으로 모습을 드러낼 수 있다. 언론사 차원에서 언론인을 위한 심리적 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취재 환경을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재난 취재 이후 일정 기간 심리 상담을 의무적으로 제공하는 제도가 필요하며, 언론사 내부에서도 정신 건강 관리를 위한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

(6) 회복관점 보도의 필요성

재난보도는 단순히 피해 상황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지원, 피해자 보호, 공정한 책임 규명 등의 정보를 포함해야 한다. 그러나 재난보도 현황조사에 따르면 재난 당사자, 지



역 공동체, 자원봉사자 등의 회복 활동이나 구조활동에 대한 보도는 5% 미만에 그쳤다. 보도 초기에는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야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피해자의 회복 과정과 사회적 지원을 조명하는 보도가 필요하다. 재난 당사자를 ‘피해자’ 혹은 ‘희생자’로 머물게 하는 대신, 회복을 위한 주체로 인식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국가트라우마센터와 같은 전문기관의 의견을 반영하여 심리적 회복을 돕는 정보도 제공해야 한다. 또한 전문가들이 추천하는 회복 단계별 심리적 대응 방안도 언론을 통해 지속적으로 보도될 필요가 있다.

3. 맺음말

재난보도는 단순한 정보 전달을 넘어 피해자의 회복과 사회적 연대를 강화하는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많은 재난보도가 선정적이고 자극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지며, 책임 소재를 단기적으로 규명하는 데 집중하면서 재난 당사자들에게 2차 피해를 유발하는 경우가 많다. 또한, 언론과 대중의 관심이 빠르게 사그라들면서 근본적인 원인 규명과 재발 방지 대책이 충분히 논의되지 못한 채 흐지부지되는 문제도 반복되고 있다.

재난은 사회 전체가 함께 대응하고 극복해야 할 문제이며, 언론은 단순한 비판과 논란을 넘어 피해자의 회복 과정과 사회적 지원을 지속적으로 조명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 책임 추궁에만 초점을 맞춘 보도를 넘어, 트라우마 예방과 회복을 고려한 언론 보도 방식이 정착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재난보도 가이드라인을 준수하고, 피해자의 존엄을 보호하며, 재난의 장기적인 영향을 다루는 보도가 확대되어야 한다.

또한, 재난보도를 담당하는 언론인들 역시 트라우마에 노출될 수밖에 없는 만큼, 이들에 대한 심리적 지원과 취재 환경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 재난보도가 피해자뿐만 아니라 언론인, 사회 전체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때, 보다 신중하고 균형 잡힌 접근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재난이 발생한 후 시간이 지나도 피해자와 유가족이 '잊힌 존재'가 되지 않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연대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언론, 정부, 시민사회가 함께 협력하여 피해자 지원과 사회적 안전망 강화를 위한 논의를 이어나가야 하며, 재난을 통해 얻은 교훈이 향후 더 나은 대응 체계를 구축하는 데 기여해야 한다. 🙏

참고 문헌

- 국가트라우마센터 (2022). 트라우마 예방을 위한 재난보도 가이드라인
- 이나빈, 이정현, 유선영, 심민영 (2020). 재난피해자 정신질환 발병에 영향을 미치는 이차 스트레스 요인.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제34권 제2호, pp19-36. 참조
- 박상의, 이정현, 정유지 (2018). 미디어 노출에 의한 간접외상이 외상 후 스트레스 증상에 미치는 영향 : 온라인 설문 조사 연구. <대한불안학회지>, 제14권 제2호, pp71-79. 참조
- 이홍표, 최윤경, 이재호, 이홍석 (2016). 세월호 뉴스 노출을 통한 간접 외상의 심리적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문화 및 사회문제>, 제22권 제3호, pp411-430. 참조
- 김성용. (2020). 세월호 참사 전후 한국 성인의 우울 궤적 분석: 적응유연성을 중심으로. <보건사회연구>, 제40권 제1호, pp11-50. 참조